



## Chungnam Economic Trends

경제일지





# 충남경제일지

ISSUE

경제 동향

경제 일지

경제 지표

주요

## ['13. 8. 22.] 충남도 추석 물가관리 팔 건었다

- 9월 3~17일 제수용 성수품 및 주요 개인서비스요금 중점관리 -
- 충남도는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9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 제수용 성수품 및 주요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해 '추석대비 물가안정대책'을 추진
  - 이를 위해 도는 20개 제수용 성수품과 10개 개인서비스요금을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정하고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추진상황과 가격동향 등을 매일 점검
  - 중점관리 성수품 20개 품목은 ▲사과, 배, 밤 배추, 양파, 파, 고추, 마늘, 농산물 8종 ▲참조기, 명태, 오징어, 김 수산물 4종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축산물 4종 ▲참기름, 콩기름, 두부, 밀가루 공산물 4종으로, 도는 성수품의 가격안정을 위해 직거래 장터, 할인판매를 확대 운영하는 등 적극 대처
  - 도는 또 '물가안정 책임관'을 위촉해 일일가격조사 등 현장위주의 물가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도와 각 시·군, 소비자단체 합동으로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 9월 4일부터 3일간 가격표시제 이행여부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특별지도점검
  - 이와 함께 도는 이·미용료, 목욕료, 노래방·당구장 이용료 등 10개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기습인상을 자제를 유도하고,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할인·착한가격업소 이용하기' 등 민간 물가견제 기능을 최대한 살려 나가기로 함
  - 도 관계자는 "매점매석과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적발시 해당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민들이 즐거운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알뜰 구매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함

## ['13. 8. 26.] 충남 수출 '거침없는 질주'

- 1~7월 365억4900만\$ 전년대비 6% 증가...하반기 순항 예고 -
- 전국은 0.9% 증가 그쳐...무역수지 흑자 166억\$ 전국 2위 유지 -
- 올해 충남도 내 수출액이 365억 달러를 넘어서며 하반기 수출도 거침없는 질주를 시작
- 26일 도에 따르면, 지난 1~7월 도내 총 수출액은 365억49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

간 344억7100만 달러에 비해 6.0%(20억7800만 달러) 증가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같은 기간 전국 수출은 3224억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3196억4400만 달러에 비해 0.9%(27억5700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
- 또 도내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 199억3500만 달러보다 0.1%(2200만 달러) 감소한 199억1300만 달러로 기록
- 이에 따라 도내 무역수지 흑자액은 지난 같은 기간 145억 달러보다 14.5%(21억 달러) 늘어난 166억3600만 달러로 전국 2위를 유지
- 수출증가율이 가장 큰 품목은 무선통신기기로 185.5%를 기록했으며, 기구부품(152.1%)과 석유화학중간원료(94.5%)와 전자응용기기(28.0%), 자동차 부품(13.2%) 등이 뒤를 이음
- 반면 석유제품은 중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 부진으로 12.3% 감소하고, 자동차 수출액도 13.4% 줄었으나, 반도체는 1.2% 증가세로 돌아섬
- 수출액은 ▲반도체가 91억8600만 달러로 1위를 기록했으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65억2700만 달러 ▲전자응용기기 32억100만 달러 ▲석유제품 28억8900만 달러 ▲석유화학중간원료 21억1000만 달러 ▲컴퓨터 14억5500만 달러 ▲자동차부품 14억 4100만 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국가별로는 중국(16.3%), 미국(13.8%), 베트남(18.7%) 지역은 수출이 증가했으나, 일본, 싱가포르, 홍콩 지역은 12.9~18.4% 가량 감소
- 특히 최근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이란에 대한 수출은 지난 6월20.2% 감소한데 이어 지난달에도 46.7% 감소
- 국가별 수출액은 ▲중국이 170억1700만 달러로 가장 많고 ▲홍콩 42억1600만 달러 ▲미국 29억800만 달러 ▲대만 19억1600만 달러 ▲일본 17억3300만 달러 ▲베트남 14억 3600만 달러 등의 순으로 집계
- 최운현 도 경제통상실장은 “이란에 대한 제재 강화와 엔저 장기화 지속 등 최근 대외 여건은 불리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상반기 수출 탄력세를 이어가고, 남은 기간 신흥시장 중심으로 해외 마케팅 사업을 적극적으로 편다면 올해 수출 목표(630억 달러)는 무난히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한편 도는 중국과 동남아 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를 위해 오는 10월 말 홍콩에서 도내 유망 수출기업 32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충남우수상품 전시·상담회’를 개최하고, 11월에는 우수 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해 도내 유망 수출기업간 1대 1 수출상담 기회를 제공할 예정

## ['13. 8. 28.] 고도기술 외투기업 충남경제 발전 이끈다

- 디스플레이·반도체 등 맹활약...상반기 무역흑자 141억불 견인 -

- 충남도의 올해 상반기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141억3200만 달러를 기록. 이는 도가 전략적으로 유치한 고도기술 외투기업의 성장세에 힘입은 것으로 지속된 국제경기 침체에도 하반기 무역수지 전망을 밝게 하고 있음
- 도는 올해 상반기 도내 무역수지 동향을 분석한 결과 도내 무역흑자 규모는 전년 동기 에 비해 19.8% 늘어난 141억32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힘
- 도내 상반기 무역흑자는 수출증가에 따른 것으로, 품목별로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전자응용기기 ▲석유화학중간원료 ▲자동차부품 순으로 수출이 증가
- 특히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부품 분야의 수출 성장세는 도가 전략적으로 투자유치 한 고도기술 외투기업의 도내 생산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 현재 도내에는 일본 우베코산 폴리이미드(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무로후시(베어링 리테 이너), 아드반테스트(반도체 테스터), 벨기에 유미코아(리튬2차전지 소재), 오스트리아 마그나(자동차 커플링) 등 고도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들이 입지해 국내 대기기업의 수출제품에 부품 및 소재를 공급하고 있음
- 이들 고도기술 기업은 완성제품의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장비 및 부품소재를 생산 하는 기업으로, 이들 외투기업의 완제품 수출과 부품소재 수입대체효과, 간접수출효과 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
- 천안 소재 반도체기업 관계자는 “통상 신제품을 연구단계에서 실제 개발·양산하는 데에 는 최소 2년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면서 “충남도의 적극적인 유치로 외투기업의 기술이 시의적절하게 보급돼 우리나라 제품의 국제경쟁력 확보가 가능했다”고 설명
- 이와 함께 도내 주력산업인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분야에는 고도기술을 보유한 외투기 업 외에도 에드워드(영국), ASM(네덜란드) 등의 장비업체와 다우케미컬(미국) 등의 소 재업체가 천안지역을 중심으로 포진해 생산활동을 하고 있음
- 또 자동차 분야에서는 일본의 태평양공업, 현담산업 등이 아산지역에서 공장을 운영 중 으로, 이들 외투기업의 직접적인 생산효과 이외에도 집적효과를 노린 다른 기업의 투 자가 이어지고 있어 충남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이동구 도 투자입지과장은 “천안·아산지역 외에도 서산, 예산지역에도 독일·미국·일본· 영국 등의 고도기술 부품소재기업들의 투자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도내에서 생산 되는 수출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전개해 나갈 계 획”이라고 밝힘

[표1] 도내 고도기술 외투기업 현황

기업명	국가	고도기술 분야	소재지
아드반테스트	일본	반도체 테스트 장비	천안
유미코아	벨기에	리튬2차전지 소재	천안
마그나	오스트리아	자동차 전자식 커플링	아산
우베코산	일본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소재	아산
무로후시	일본	고속·고하중 베어링 리테이너	천안
코닝	미국	디스플레이용 유리	아산

## [’13. 8. 28.] 고용서비스 제고 위한 현장 목소리 듣는다

- 8월 28일 제3차 충남고용포럼...학계 전문가 등 50여명 참석 -

- 충남도는 28일 천안컨벤션센터에서 도내 학계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지역의 고용서비스 제고를 위한 2013년 제3회 충남고용포럼을 개최
  - 이날 포럼은 ‘베이비부머와 정년연장의 과제’와 ‘중소기업 근로시간 실태와 정책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
  - 제1주제인 ‘베이비부머와 정년연장의 과제’에 대해서는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난 1982년 7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우리나라 연령별·계층별 고용실업 현황 연구결과를 발표
  - 이 자리에서 안 위원은 “청년층과 관련층간에 직종분담이 이뤄져 있어 대체 관계에 있다가 보다는 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기업에서는 중고령층 고용유지 및 재고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근로자는 평생학습을 통한 지속적인 인적자원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
  - 이어 제2 주제 발제자로 나선 조세형 박사(주CNP컨설팅 대표)는 “장시간 근로관행이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경영활동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개한다면 근무형태의 변경, 인사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함
  - 참석자들은 주제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도내 중소기업 고용개선을 위해서는 HRD사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 충남지역 기업의 업종별 협의체 구성과 고용관련 자료와 의견의 활발한 공유를 위한 충남고용포털사이트 구축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

- 도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논의된 정책 과제들을 관련기관에 건의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고용정책이 수립·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남의 고용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함

### [’13. 8. 28.] 탕정제1·현대대죽산단 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환경갈등 최소화 등 기대 -
- 충남도는 8월 28일 소회의실에서 탕정 제1일반산업단지와 현대대죽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을 위해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
  - 도에 따르면, 이번 환경영향협의회는 지난해 7월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민대표와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발족한 것으로, 도는 주민참여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이번 협의회는 심의대상인 탕정 제1일반산업단지는 (주)동아토건에서 총사업비 2479억원을 들여 오는 2018년까지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일원에 57만2892㎡ 규모로 신규로 조성될 예정으로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체 등이 들어섬
  - 또 현대대죽 일반산업단지는 현대오일뱅크(주)에서 총사업비 1940억원을 들여 오는 2017년까지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일원에 67만2528㎡ 규모로 조성 중에 있으며 코크스 연탄 석유정제품제조업 등이 입지할 예정
  - 이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오는 9월 3일부터 결정내용을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
  - 협의회 위원장인 최운현 경제통상실장은 “이번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산업단지 계획 수립시부터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라며 “오늘 협의회 중 현대대죽 일반산업단지는 대산석유화학단지의 특성을 감안해 해당지역 민간위원을 통상 2명에서 4명으로 확대 구성하는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함

### [’13. 8. 29.] 충남인 2명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

- 신우영 · 손일만 명장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 보유 기술자 영예 -
- 충남도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선정한 ‘올해의 대한민국 명장’에 현대제철(주) 신우영 기장과 손일만 기감 등 2명의 충남인이 선정됐다고 29일 밝힘
  - 숙련기술 분야의 최고의 상인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된 2명은 신우영 기장과 손일만 기감으로 두 명장 모두 현대제철(주)에서 근무 중
  - 신우영 기장은 기계정비 직종의 명장으로 선정됐으며 해당분야에 23년 넘게 근무하면

- 서 특허등록 및 실용신안 출원과 품질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음
- 손일만 기감은 소성가공 직종의 명장으로 선정됐으며 해당분야에 33년 넘게 근무하면서 초대형 금속압연공장 건설 등 금속압연분야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대한민국 명장 선정자에게는 내달 2일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에서 대통령 명의 증서와 명패, 휘장이 수여될 예정이며 일시장려금과 계속종사장려금도 함께 지원

### ['13. 9. 1.] 짹짹한 경제, 서민 목소리부터 쉰다

- 안희정 지사, 이달부터 소상공인 등 ‘기업·민생현장 탐방’ 돌입 -
  - 세계 경기침체 장기화와 내수부진 등으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저변의 목소리 청취에 나선다
  -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지역경제 5대 분야 정책토론회를 차례로 개최하고,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 등 민생현장을 방문하는 등 ‘기업·민생현장 탐방’을 진행
  - 기업·민생현장 탐방 첫 일정은 소상공인 정책토론회로, 3일 오후 공주 한옥마을에서 충남 소상공인연합회 회원과 지역 소상공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림
  - 이날 토론회에서 안 지사는 도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설명한 뒤, 소상공인들의 가감 없는 목소리를 듣고 정책적 해결방안을 모색
  - 다음 달 4일 태안 천리포수목원에서 열리는 전통시장 정책토론회에는 전통시장연합회 임원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도의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발표와 토론 등이 진행됨
  -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정책토론회는 11월 14일 온양관광호텔에서 도내 중소기업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벤처기업 정책토론회는 같은 달 27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농공단지 입주자 정책토론회는 12월 3일 예산농공단지에서 각각 마련할 예정
  - 안 지사는 특히 정책토론회에 맞춰 현장방문도 진행할 계획으로, 3일 소상공인 정책토론회 이후에는 공주지역 밤과자 제조판매업소를 찾고, 다음 달 전통시장 정책토론회 이후에는 태안서부시장을, 11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정책토론회 이후에는 인근 기업을 각각 찾아 현장시설을 살피고 근로자 등과 대화를 나눌 예정
  - 민생탐방은 시·군 지역 방문과 연계 추진할 방침으로, 주로 정기시장을 찾아 상인을 격려하고 어려움을 들을 예정이며, 경제·노동계 간담회는 경제기관·단체, 한국·민주노총 등과 수시로 만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지역 경제정책에 대해 토론
  - 중소기업 탐방은 국내 유치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향토기업 등을 찾아 중소기업 정책 설명과 토론을 가질 예정이며, 최고경영자 과정 등에서의 특강도 추진
  - 도 관계자는 “기업·민생현장 탐방은 다양한 경제 주체와의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지역



경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번 탐방에서 나온 목소리는 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

### [’13. 9. 2.] 충남도 추석절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98억원 특별 지원

- 도내 중소기업 49개업체에 경영안정자금 최대 2억원까지 지원 -
- 충남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안정자금으로 도내 49개 업체에 98억원을 특별융자 지원한다고 2일 밝힘
  - 특별융자 지원 대상은 도의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한도액까지 지원받아 상환 중인 기업이며, 최대 지원금액은 2억원
  - 다만 설·추석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이미 융자 지원받아 상환 중이거나 상환 후 1년이 넘지 않은 기업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융자 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 규정과 업체의 신용도·담보 능력에 따라 차등 결정되며, 융자조건은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도에서는 기업과 금융기관간 결정된 금리에서 2.0%의 이자를 지원
  - 지원대상에 선정된 업체는 9. 3.(화)부터 시중은행 12개 협약 금융기관에서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으면 됨
  - 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융자 지원은 근로자 임금 지급과 원·부자재 구입대금 등 일시적 자금수요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힘

### [’13. 9. 6.] 충남도 외투기업간 네트워크 강화지원

- 6일 사례로 알아보는 노동관계 법령·이슈 교육, 자율 네트워킹 실시 -
- 충남도는 6일 아산 제일호텔에서 도내 외국인투자기업 인사·노무·경영지원담당자 30여명을 대상으로 ‘2013년 신설 및 개정된 노동관계 법령 및 노동계 이슈 관련 노무교육’을 실시
  - 충남도가 주최하고 충남외국인투자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도내 외국인투자기업 인사·노무·경영지원 담당자의 실무역량 향상은 물론, 외투기업 상호간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외투기업 지원사업 소개를 통해 기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
  - 교육의 주요내용은 ▲개정 노동법 ▲통상임금 ▲비정규직 ▲산업 안전 등으로 공인노무사가 교육을 진행했으며 외투기업 지원사업 관련 협조 및 당부 사항으로 마무리

- 도 관계자는 “이번교육을 통해 외투기업을 상호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서로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함

### [’13. 9. 8.] 도 지정 선도기업·유망중소 성장세 지속

- 지정때보다 매출액 50%·종업원 20% 신장...영예로운 졸업도-
  - 충남도가 우수중소기업 육성시책의 일환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선도·유망중소기업’들이 매출과 고용 면에서 뚜렷한 성장세를 이어온 것으로 나타남
    - 도가 지난달 선도·유망중소기업 170업체(선도 24·유망 146)에 대한 경영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지난해 말 매출액은 총 2조1959억원으로 지정당시보다 50%(7312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
    - 특히 선도기업의 경우 지정당시 매출 2359억원보다 78%(1841억원) 증가한 4200억원, 유망중소기업은 지정당시 매출 1조2289억원보다 45%(5471억원) 증가한 1조776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
    - 선도기업 중 매출액 최고 신장 기업은 아산에 위치한 영화테크(주)로 1768%(413억원) 신장을 기록했다. 유망중소기업 중에서는 금산에 위치한 대동고려인삼(주)가 522%(170억원)가량 매출이 늘어 최고 신장기업으로 나타남
    - 또 선도기업 24업체 중 ▲1999년 공주 (주)동해기계항공 ▲2004년 홍성 (주)에스에프씨 ▲2006년 아산 영화테크(주) ▲2008년 서천 알프스식품(주) 등 4개 업체가 가파른 성장으로 지난해 말 매출액이 선도기업 지정 기준범위(300억원)를 초과해 9월말 영예로운 졸업을 하게 됨
    - 매출 신장에 따라 종업원 수도 증가해 선도기업은 지정 당시 1372명에서 지난해 말 1774명으로 29%(402명) 증가했고, 유망중소기업은 지정 당시 5031명에서 지난해 말 5931명으로 18%(900명) 증가 추세를 보임
    -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기업은 선도기업에서는 395%(158명)이 증가한 아산 영화테크(주)로 매출액과 더불어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며, 유망중소기업에서는 홍성 (주)솔피F&C가 967%(29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
    - 이와 함께 선도·유망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정에 대한 성과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들 기업은 ▲기업이미지 향상 ▲자금지원 ▲정부공모사업 우대 등을 효과가 있었다고 답변
    - 도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 불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선도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 철저한 사후관리와 함께,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한편, 선도기업은 고부가가치형 기술을 보유한 매출 300억원 미만의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년에 한차례씩 지정하는 것으로, 도는 지난 2010년 지정을 마지막으로 지정 업체들을 관리해오고 있음

- 또 유망중소기업은 도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종업원수 300인 미만의 기업을 매년 발굴 지정·관리하는 것으로, 도는 이들 업체에 자금, 판로, 인력 등 각종 지원사업을 우선적 지원
- 선도기업과 유망중소기업은 2012년 2월 조례 개정으로 지정대상과 지원혜택이 비슷해짐에 따라 하나로 통합되어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이미 지정된 선도기업은 지정연도부터 6년 동안 관리하고, 기간이 경과한 기업의 경우 2년간의 유예기간 두고 졸업하게 됨

### ['13. 9. 8.] 공정한 상거래를 위한 저울류 특별점검

- 도, 추석명절 대비 대형마트 · 전통시장 등 저울류 점검 -
  - 충남도는 제수용 및 일반 생활용품이 다량 거래되는 추석을 앞두고 9일부터 12일 까지 4일간 도내 전역에서 시·군 담당자와 저울류 교차 합동점검을 실시
    -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불법계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공정하고 정확한 상거래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
    -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이 다량 거래되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정육점, 식품점, 양곡상, 청과상, 농·수산물시장을 중심으로 가격결정에 사용되는 접시 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 각종 상거래용 저울임
    - 점검 내용은 ▲사용공차 초과여부 ▲계량기변조 및 봉인상태 ▲영점조정상태 ▲검정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 ▲비법정 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사용 행위 ▲기타 계량법령 위반행위 여부 등
    - 도는 정기검사 미필과 유리파손 등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검정 미필 계량기 변조 등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
    - 도는 지난 설 명절 기간 실시한 점검에서 31개 업소, 33건이 단속돼 시정조치 및 과태료처분을 받은 바 있음
    - 도 관계자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도 빈 저울이 수평을 유지하고 바늘이 0점에 있는지를 확인해 불법·불량 저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함

### ['13. 9. 10.] “중소기업, 이제 안심하고 수출하세요!”

- 道, 단기수출보험 가입희망 업체 모집...수출대금 미회수시 보상 -

- 충남도는 도내 영세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대금 미회수 등의 위험으로부터 도내 중소기업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중소중견Plus+ 단체보험’에 가입을 추진
- 도에 따르면 ‘중소중견Plus+ 단체보험’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위험(수입자, 신용장, 수입국)으로부터 수출대금 미회수를 담보해주는 상품으로, 향후 1년간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5만불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
- 도는 도내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단체보험 가입 희망업체를 선착순 모집해 보험계약자로서 일정 자격을 충족하는 도내 영세 수출기업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에 대한 가입을 추진
- 도는 이번 단체보험 가입이 일본 엔화강세, 이집트, 인도 등 신흥시장의 경제위기로 인한 도내 중소수출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